

# 생산자 가격, 도매 가격으로 계란가격 고시방법 개선

남 두 희

(홍보실장겸 편집부장)

**계란** 가격 고시가 기존 도매가격고시(일명 가라고 시제)에서 양계인을 위한 생산자가격, 상인을 위한 도매가격으로 2원화 되었다.

6월 말일까지 계몽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생산자가격을 양계협회에서 양계협회 회원들만을 상대하여 고시하고, 도매가격(상인가격)을 현대양계사에서 각각 고

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생산자-상인간 분쟁이 되어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피해보던 것이 다소나마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양계장에서 고질적인 고민거리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했던 불합리한 후장기(後帳記)제도를 개선해 생산자가 계란 출하시 고시가격에 의한 현장계산서를 직접 발부키로 했다

이제까지 농장출하가에 2원을 더해 고시하던 제도는 극소수의 납품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으로 그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산자, 상인, 소비자 공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2~3중 시세발생, 통제자료 불확실, 세무자료 등에 의해 생산자만 골탕을 먹인 게 사실이었다.



## 생산자가 현장 계산서(帳記) 발급

지난 6월14일(화) 오후 6시30분 부터 장장 3시간여의 마라톤 회의(장소 : 양계협회 회의실) 끝에 생산자-상인측 대표들은 △ 앞으로 생산자가격(대한양계협회에서 고시)과 도매가격(현대양계사에서 고시)으로 양분 고시한다 △ 생산자가격은 생산자에게만 알리고 도매가격은 상인측에만 전한다 △ 생산자가격은 생산자측, 상인

측 각 4명의 대표위원이 결정한다 △상인의 이윤은 평균 3원을 원칙으로 하고 난가조절은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한 측이 요청하고 장소결정은 요청한 측에서 결정한다 △생산자는 협회로부터 가격변동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의 난가에 의해 현장계산서를 발부하고 (후장기제도 완전폐지) 상인은 가격변동이 있을때 가격변동사항을 알려줄 의무를 지니며 변경통보 전까지는 당일계산서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환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 부터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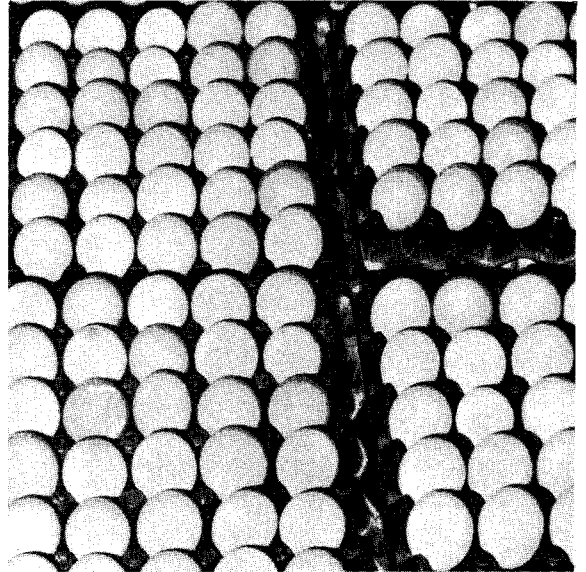
이로서 본회에서 앞으로는 본회 회원들에게만 한정해 변동 고시된 계란가격을 통보하며 전화문의도 회원들에게만 응답한 예정으로 양계인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계란판매시 생산자 스스로 파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상인에게 넘겨준 뒤 소비자에게 판매 후 정산통보를 받는 후장기제도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던 생산자측에서는 가격의 고하간에 반드시 판매당시 고시가격(또는 상인과 별도 약정시 약정가격)에 의한 장기를 상인측에 발부키로 했는데 생산자들이 능동적으로 이를 지켜나갈때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된다. 구태에 의한 후장기제도는 내 물건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남에게 맡기는 자신의 주어진 권리포기행위로 평가될 것이며 결국은 생산자 본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 완벽하지는 않으나 현재로는 최선책(?)

생산자는 생산자 받을 가격만 관심을 갖으면 된다. 도매가격이 얼마이건 상관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생산자로서는 원활한 유통만이 관심의 대상이다. 결국은 상인판매 가격을 잘모르게 되는데 약정에 의한 평균이윤 이상으로 판매된다면 생산자측 고시위원회는 속히 생산자 가격 변동을 위한 난가조절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난가하락요인이 생기면 상인은 생산자측을 소집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존 조절위원들의 대표권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소지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후에 논하기로 하자.

수급이 불안정한 계란의 유통문제에 있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완벽한 제도는 영원히 찾을 수 없



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따름이고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생산자-상인간 최소한의 마찰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선한 계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활한 유통을 시키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개개 생산자, 상인의 이해관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번 계란가격 고시방법의 개선으로 농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한다. 후장기제도로 계란을 판매하던 거의 대부분의 농장이 그날시세 현장계산서를 발부하고 상인들도 대체로 협조적이라는 반응이다. 꾸준히 제도를 지켜나가고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여 가기를 생산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오지의 양계인들이 각종 단체나 조직에 속해있지 못한채 변동상황을 신속히 알지 못한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기회에 가까운 계우회나 양계협회에 가입하여 정보를 나눔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찾기를 바란다.

전기한 바와같이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을것이나 더 보완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부단히 노력해야하겠다. 계란도매시장 설치, 경락가격제도 도입, 집하장 설립, GP처리, 계란 유통제도 등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양계**